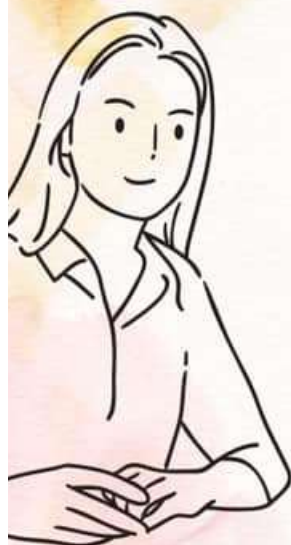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 진행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패널

원민경 (법무법인 원)  
서해진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정수경 (법무법인 지혜로)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연대자D (반(反)성폭력 활동가)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일시 \_ 2021년 12월 3일(금) 14:00-16:30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 사전 신청자에게 링크 발송드립니다.

주최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문의 :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031-281-1366





[사후자료집]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 유튜브로 다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mVRw3iCanX0>

#### 순서

사회자 · 패널소개	1
주제1. 피해자가 체감한 피해자국선변호사	7
└ 발표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피해자 설문결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혜란 소장)	9
└ 발표2. 수사재판과정에 대한 피해자 설문결과 (반(反)성폭력 활동가 연대자D)	25
주제2.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체감한 제도	47
└ 발표3. 피해자국선변호사 경험 및 의견 설문결과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서혜진 변호사)	49
주제3. 협력적 법률조력, 어떻게 가능할까?	69
주제4.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77
질의응답 및 참여자의견	83



## 사회자 · 패널 소개





**김혜정** 안녕하세요?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토론회 사회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소장이라고 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정책대응팀에서 이 토론회를 기획했고, 이 토론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조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빠짐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수사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부터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 적용된 후 8년차가 되고 있는데요.

2013년 초기에는 이 제도의 의미, 방향, 운영에 대한 논문, 연구, 토론회, 포럼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가 그냥 있다고 해서 가동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한계를 체감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의견이 반영되어야 제도의 의미가 살아나는데 말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기대했던 것이 실현되지 않아 당황하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은 이 활동에서 더 이상 보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조건과 환경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 시간이 마련되었고, 여러 현장의 분들이 참여신청해주셨습니다. 법원, 경찰, 검찰, 피해자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 예비 법조인, 현재 법조인, 피해자 국선변호사들,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들 총 300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참석해주

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공동 사회를 맡은 백소운 변호사님 소개할게요.

**백소운** 안녕하세요? 공동 진행을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백소운입니다. 저는 공익 변론을 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 피해자 변호사로 역할을 희망하는 많은 다양한 여성 변호사님을 뵈고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단체나 다른 조력 기관과 함께 연대한다는 게 혼자 마음만 앞선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피해자와 단물이 진행했을 때도 어려움이 많으니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전문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개인의 역량이나 수준에만 맡겨질 것이 아니라 좀 더 긴밀한 연대나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변호사에 대해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바, 각 변호사들이 처한 상황과 경험 차이, 그리고 방점을 두는 것들, 서로에 대한 기대 차이 등이 크다보니 오늘 토론회가 서로의 상황, 위치, 경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신 패널 분들은 모두 다 피해자 (법률)조력 분야에서 일당백을 하고 계시는데요,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토론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각자 1분 내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 활동하는 김여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17년부터 본격 활동 시작하면서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지원해왔고 저는 피해지원한 지 3년 차입니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재판 현장에서의 이야기와 저희 단체가 운영하는 법률지원단 현황 등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사이버성폭력을 대응하면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삭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혹은 가해자를 특정해서 처벌하고 싶은데 이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활동을 하다보니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어떤 팀워크를 발휘하느냐에 따라 불기소가 되거나 무죄가 나오거나, 삭제가 다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목격하게 되는 듯 해요. 그래서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대자D** 저는 연대자D입니다. 2010년 성폭력 피해를 입고 형사사법 절차를 혼자서 밟은 경험이 있는 당사자이기도 하고,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을 성폭력피해자와 1:1로 연대하면서 직접 시스템의 문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국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별로 수사와 재판이 어떤 관행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피해당사자, 연대자, 활동가, 법률 전문가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을 조율하고 협력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를 거쳐서 결국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재구성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력자 특히 법률전문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오해와 편견은 없는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들은 무엇인지? 스스로없이 드러내고 문제점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자 나왔습니다.

**김혜란** 울산동구 가정폭력통합상담소에 일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공동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주신 토론회에 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로서 오게 되어 어깨가 무겁기도 하고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 문자화되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벌써 8년, 9년째 접어들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실제로 피해자들이 법률 조력을 받을 때 당당하게 그리고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 아무런 국가지원이 없이 시작했는데 20년 전입니다. 그때 폭력피해여성을 돈 10원도 받지 않고 이혼할 수 있게 도와줬던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변호사님을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 변호사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변호사가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심성이나 그 때의 분위기나 기분, 개인의 도덕심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기본적인 제도 속에서 보장받으면서 피해자가 인권을 회복하고 일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게 한 걸음 나간다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경** 정수경 변호사입니다.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국선변호사로 활동해왔고 중간에 몇 년간은 동부지방검찰청 사건도 해서 1000건 이상 맡아서 국선 변호사 일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로서는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심리적으로 나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제대로 보조하지 못하고 법률 조력하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있었고 또 한편 사회적인 여론이 악화되면서 정당하게 하는 업무마저 비난받고 오도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저와 또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2021년 12월 이런 자리가 생긴 것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선변호사는 이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분은 어떤 것이 힘드셨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피해자의 사정에 대해서도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원민경**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민경 변호사입니다. 정 변호사님이 1000여 건 수행했다고 했는데 그에 비하면 적은 수의 피해자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원과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소속으로 있으면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과 연대하며 피해자 상담, 법률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상담소 활동가와 피해자를 조력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상담소 활동가들의 진심과 열정이 피해자들에게 닿을 때 법률지원이 최상의 결과를 내는 걸 많이 실감했습니다. 작년에는 민변 성착취대응팀 변호사들과 텔레그램 피해자 지원을 하면서 더욱 단체와 피해자 변호사들이 함께 연대할 때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구조를 국가에게만 맡겨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마련된 자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혜진**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를 맡고 있고, 정수경 변호사님과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초기에 활발하게 해서 나름 법무부장관 감사장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문제점에 직면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국선 사건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12년차 변호사 생활에 들어섰는데 변호사 생활의 반 이상을 사실상 피해자 지원단체와 조력인들과 협업한 경험이 온 좋게 많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을 때 피해자 지원의



폭발적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한 경험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정말 피해자를 위한 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지만 사실상 처음 있는 토론회이고, 변호사, 피해자, 피해자 지원단체, 조력자들 모두 모여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앞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혜정** 사회자 둘과 여섯 분의 패널 소개를 쭉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총 네 가지 주제를 30분가량씩 연속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진행될 네 가지 주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체감한 피국변>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안내를 받고 이런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짚어보려고 합니다. 연대자D님, 김혜란님이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말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피국변이 체감한 제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실제 선임되어 조력을 하려다 보니 실제로 제도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 사건 마무리와 보수 지급은 어떤지, 수년째 청구를 못 하는 일은 왜 발생하는지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협력적 법률조력 어떻게 가능할까?>입니다. 법무부만 잘하면 다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요소가 어우러져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네 번째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① 피해자가 체감한 피국변



**김혜란**

(울산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백소윤** 첫 번째 주제는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현황을 알기 위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은 아무래도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지만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은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올해 7월 전국 40개 상담소들이 피국변 제도 관련 질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응답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전국에서 피해자 연대 및 방청연대를 하는 연대자D님도 피해자 66명 대상 조사 및 인터뷰를 했습니다. 귀한 자료를 공유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혜란 공동대표 발제를 듣겠습니다.

“귀찮은 사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



## 피해자국선변호사 경험에 대한 조사

- 조사기간 : 2021년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
- 조사대상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130개 성폭력상담소 중
- 조사참여자 : 40개 성폭력상담소
- 조사방법 : 설문지에 상담소 기명으로 참여

**발표 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김혜란입니다.

제목을 <“귀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으로 정해봤어요. 많은 상담소에 응답한 자료를 읽으며 무엇이 중요할까? 고민했어요.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만났을 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어떤 변호사님이 “전화하지 마세요, 오지도 마세요, 톡만 하죠”라고 해서 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 한번 하면 2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중에 사인만 하라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 받았다고 해요. 어떤 변호사는 어떻게 어떤 변호사는 어떻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피해자는 귀찮은 사람이 아니고 지원자도 변호사님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피해자를 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경험에 대한 조사라고 PPT 화면 보이시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좋은 경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매년 1월 정기총회 때 수사재판상의 결림돌, 디딤돌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상을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 국선변호사께도 상 드리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자리는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이므로 ‘경험’ 조사이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변호사는 훌륭하고 좋은 분이 많았지만, 제도의 한계가 있다보니 개인적인 것으로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사 기간은 7월 23 ~ 30일이지만, 23일 금요일 6시부터 시작해서 실제 조사 기간은 5일입니다. 응답기관에 대해서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상담소가 130개가 넘지만 40개 기관이 답을 했습니다. 전성협에서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 속에서 긴급하게 응답했을 때 실제로 제도 개선이 실행되는가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응답수는 40개 성폭력상담소에서 220여건을 응답했습니다. 상담소 활동가가 기입했지만, 피해자/내담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또 상담소 이름을 안 밝히고 응답을 보내주신 곳도 있습니다. 너무 리얼하거나 너무 구체적인 내용은 걸러내고 피해자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되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 어려움: 25건

### 일방적 소통

내담자와 소통 않고  
본인이 아는 내용으로  
판단.

피해자 질문에 회피  
부가적 설명 막음  
피해자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함

피해자의 고통스런  
이야기도  
거의 무반응

### 이해 부족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소통이 어려움  
장애특성 이해부족으로  
법적용어 그대로 사용

법률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빠른 전달

부연설명 없이  
법적 의사 전달

### 소통 부재

소통자체가 부재

통화가 되지 않음

전화번호 남겨도  
전화 없음

변호사 연령 등

38



- 국선변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해 사전 안내가 필요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필요
- 소통 조력자

**발표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소통의 어려움 25건. 사실 응답한 내용의 대부분이 소통의 어려움이  
라고 봐도 무관할 듯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방적 소통’과 ‘이해 부족’이 많았습니다. ‘일방적 소통’은 변호사가 검찰  
을 통해 얻은 종이 한 장 만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든지, 피해  
자가 질문하면 회피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말을 막는다가 많습니다. ‘이해 부족’은 상담  
소 활동가가 옆에서 볼 때도 변호사가 피해자의 어떤 고통스러운 이야기에든 무반응하더  
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성협에 20여 개가 넘는 장애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응답한 8개 기관 모두 피  
해자 국선변호사들이 발달장애의 특성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소통도 안될 뿐 아니라 중  
요한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 외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너무 간단하  
게 빨리 말씀하는 것, 부연 설명없이 법적인 표현만 전달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예 전  
화가 안되어서 목소리 들어보지 못하거나, 소통 자체가 안 되어서 불성실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불성실로 분류할까 고민하다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소통 부재로 분류했습니다. 더불어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드러날 수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1) 국선변호사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해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  
는 하나의 일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어쩌면 인생이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변호사를 드라마를 통해 알기도 하니 기대가 클 수 있지요. 2) 발달 장애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3) 소통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담소를 통해 조력  
자가 소통하는 것도 활용이 필요하다 제언합니다.



## 성인지 감수성 부족, 2차 피해: 23건

### 가해자 입장

불법 촬영 가해자, 행시 준비생인데 유망한 사람

남자는 여자와 달라 호기심에 그럴 수 있다.

가해자들이 수사압박을 받으면 자살할 수 있다.

가해자 인상은 나쁜 사람 같지 않다.

### 피해자 문제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피해 재발 시 피해자 탓인 것처럼 말함

요즘은 지나가다 스치기만 해도 신고하는 세상, 무서운 세상

추행을 가볍게 여기는 말

### 사건 의심

거짓말하면 무고죄가 된다.

현 사건과 무관한 사적 이력을 문제삼아 피해를 의심

왜 지금 소송하려고 하느냐?

41



성인지교육 필요



**발표 1**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 23건.

가해자 입장의 피드백을 하는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행시준비생인 “가해자는 유망한 사람”이라고 두둔하거나, “남자는 여자와 달라서 호기심에 그럴 수 있다” 등. 마음속으로 가지는 것과 피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가해자가 자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이 겪어봤지만 가해자 인상 보니까 사람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가해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냐”, 두 번째 피해를 입었을 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스치기만 해도 신고하는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말과 태도로 피해자에게 상처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을 의심하는 것은 피해자 조사하는 경찰관이 많이 했던 것이고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안심을 하게 할 변호사가 “조금만 거짓말 하면 무고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이력을 문제 삼는다든가 “왜 지금 소송하려고 하나” 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말하는 방법이 틀려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언제나 늘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 불 성실성한 태도: 98건

### 미흡한 법률 조력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사건진행 여부를 알려  
주지 않음

재판과정에 대한 설명  
부족

불기소 언급 후 앞뒤 맥  
락에 대한 설명 없음

사건결과를 선고 후 5  
개월 지나 알려줌

### 피해자 요청 거절

탄원서 문익하자 피해자  
가 써서 법원에 직접내라

피해자 진술조서는 피해  
자가 받아왔다.

신변보호 요청하니 피해  
자가 직접해라

합의문에 2차 피해금지  
조항 넣어 달라 하니 거  
절

전화번호 알려 달라고  
하니 회피

### 안하고 안 받는다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름

한번도 전화한 적 없음

피해자 국선은 할 게 없  
다.

피해자가 물어봐도 “별  
로 소용없다.”

나는 전담변호사도 아니  
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  
다.

**발표 1** 그 다음에 불성실한 태도가 98건인데요. 불성실한 태도의 원인을 뒤에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미흡한 법률 조력에 대해서 제일 많이 꼽았습니다.

사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소송 절차상 필요한 모든 것을 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미흡하게 조력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건 진행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재판이 끝났는데도 재판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재판 과정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고 그리고 불기소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앞뒤 맥락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 주시고 사건 결과도 5개월이나 지나서 알려준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뭔가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해서 알고 요청했을 때 거절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탄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피해자가 써서 법원에 직접 내라 그리고 피해자 진술 조사는 피해자가 직접 해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니까 다른 말을 하고 이렇게 피해자요청을 거절하는 변호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소에서 제일 많이 봤던 사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안 받을래, 이런 변호사예요. 법정은 가도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이거 하면 좋을까요, 저거 하면 좋을까요, 물어봐도 그거 다 해도 별로 소용 없어요. 그리고 나는 전담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나는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사님도 있었습니다.



## 진술동행 거부: 27건

### 바빠요

시간관계상 어렵다.

다른 일정이 있다.

너무 멀다.

상담소와 소통 필요

### 의미 없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진술 동석 의미 없다.

진술 동행 자체를  
안내하지 않음

### 기타

곧 국선변호사  
관둘 거라며 거절

동행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아  
피해자는 당일까지  
불안해 함

**발표 1** 그 다음에 진술 동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변호사님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들이 진술 동행 다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뢰 관계 동석도 상담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많은 사례는 저희 상담소가 알면서 지원 안 했던 게 아니고 국선 변호사 지원을 받다가 안 돼서 저희 상담소로 온 거죠.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 간다, 시간 관계상 못 한다, 일정이 있다, 너무 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많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소와 소통을 통해서 신뢰 관계 동석 상담소가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서 조정해도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 관계 동석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변호사님도 많으셨습니다. “변호사가 가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참 깜짝 놀란 건 어떤 피해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말 변호사님하고 통화도 안 되고 변호사 너무 바쁜 척하고 변호사한테 전화했을 때 죄책감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신뢰 관계 동석을 해 주니까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이런 말을 해 주신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아무 것도 할 게 없지만 옆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피해자가 많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은 진술 동석을 안내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타로는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곧 국선변호사 관둘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변호사님도 많으셨고. 그다음에 딱 잘라서 이야기 못 하셨던 변호사님인 것 같아요. 그냥 “진술 동행 못 합니다”라고 하셨으면 될 건데 대답을 안 하고 계속 계시다가 피해자는 당일까지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하다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가해자와 합의 유도: 18건

### 소송보다 합의

합의가 소송보다 쉽다.

소송해도 승소가 어렵다

사건 자체가 처벌이 안될 수 있으니... 합의 권고.

경미한 사건이니 합의가 어떠냐

### 이래저래 합의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적어진다.

피해자가 여러 이유로 경찰조사 참여를 힘들어하자 어차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고소취하를 권유한 국선변호사, 고소취하 후 역고소로 힘들어함

합의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이므로 위험하다.

합의해서 중요한 것은 금액.. 합의를 해달라.

### 변호사는 합의

아무 연락 없다가 합의 유도 전화, 가해자 변호사인 줄 알았음

가해자 변호사처럼 합의 유도.

합의 효력에 대한 설명 없이 합의 유도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합의유도

## **발표 1** 가해자와 합의를 유도한 건 18건

소송보다 합의. 그러니까 합의가 소송보다 쉽다고 이야기하시고 소송해도 승소가 어렵다고 하시고 승소해도 처벌이 가볍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건 자체가 처벌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합의하자, 경미한 사건이니까 합의가 어떠냐라고 해서 합의 때문에 변호사님이 존재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지금 합의하지 않으면 합의금 적어진다. 그리고 피해자가 조사에 참석하는 게 힘들어하니까 피해자는 이후에 역고소로 힘들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지금 불구속상태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합의에서 중요한 건 금액이다, 빨리 금액을 정해서 합의하자 이래서 합의 자체를 너무 금전적인 것만으로 보는 변호사의 태도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는 합의가 다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례인데요. 연락 하나도 없다가 합의를 유도하는 전화를 해서 처음에 피해자는 가해자 변호사가 전화한 줄 알았대요. 그리고 가해자 변호사처럼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를 하는 것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돈과 합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모든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받기를 원하거나 가해자들로부터 사과 편지를 받는 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합의 전제는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단체에 대한 몰이해: 15건

### 지원단체가 뭔데?

상담소가 뭐하는 덴  
가요? 개인 정보라  
알려줄 수 없어요.

상담소에 대한 이해  
가 없어 사건 내용을  
공유하지 않음

### 상담소는 피곤해

여성단체 활동가와  
소통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내세움.

성폭력 상담소가  
지원하는 피해자라고  
하면 피곤해함.

### 좀 빠져 주세요.

상담소가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볼 때, 말해 줄  
의무 없다고 함.

상담자와 변호사의 역할  
이 다르니  
관심꺼달라.

질문이나 제안을 하면  
월권이라 함

50



**발표 1** 다음에 지원 단체에 대한 몰이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요. 연대 공백이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담소를 아예 모른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법률 조력도 할 수 있지만 심리적인 지원도 할 수 있고 의료 지원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적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성폭력을 반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 활동과 연구 조사 등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다가 이리이러한 일로 상담소가 전화하면 “상담소가 뭐 하는 데인가요”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 그래서 피해자가 누구고 누구는 누구라고 소개해도 상담소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서 사건에 대한 공유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변호사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상담소는 피곤하다고 생각하시는 변호사님들도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단체 활동가와 소통하지 말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우는 변호사님도 계셨고 성폭력 상담소가 지원하는 피해자라고 하니까 한숨을 쉬고 피곤해하는 변호사님도 계셨습니다.

“좀 빠져주세요 상담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호사님도 계셨는데 상담소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말해 줄 의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당신은 심리 상담만 해라, 법률 조언은 관심을 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변호사님도 있었고 어떤 질문을 하거나 제안을 하면 “월권이다, 왜 변호사에게 그런 걸 요구하느냐” 그런 변호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소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이런 일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기타 : 15건

- 직장 내 성희롱 사건법률 상담 요청에 명예훼손은 도움이 어렵다며 거절
- 피해자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재판에 참석한 변호사가 본인이 재판에 참석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내밀며 서명만 받아간 변호사
- 피해자의 약점을 피고인측에 전달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가게 한 변호사
-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가해자 사선 변호사로 활동, 확인하니 해당 피해자 국선변호사인 줄 몰랐다고 함.

## 발표 1 기타

상담만 하면 뭘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조금 더 하려고 하면 이거는 내가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다른 변호사 선임해라, 조금 상담만 더 해도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피해자랑 아무런 소통도 없이 재판에만 참석했다가 본인이 재판에 참석했다는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만 받아간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아까 제가 전화 하면 2만 원이다, 도장 파서 사인해라 그런 변호사하고 비슷한 거죠.

다른 사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이 가해자 변호사님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의 정보가 전달돼서 재판이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피해자국선변호사 이름만 알고 있었던 변호사님이 가해자 변호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앞에 단서를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훌륭한 상을 드리고 싶은 피해자국선변호사도 많고, 이게 1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아니라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발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가. 설문조사방식 및 참여인원

트위터 계정(마녀@C\_F\_diabliesse)을 통해 홍보를 했고, 구글폼을 활용, 7일(2019.12.22~2019.12.28)간 설문조사를 하여 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트위터 설문조사와는 별개로 제가 연대3)했던 피해자들 중 당시 연락이 가능했던 피해자들을 만나 기록한 것도 포함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받고 구글폼 제안을 한 후부터 한 달 정도(2019년 12월) 대면 미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직접 만나 현장에서 설문지를 전달하고 수기로 작성한 내용을 추후 정리한 것입니다. 대면방식의 설문에는 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나. 설문 참여자의 성격

위치	세부내용	참여 인원		
		설문	대면	합계
A(재판)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재판 경험이 있는/재판 진행 중인 성폭력 피해자	P <sup>1)</sup> (9)	Q, R <sup>2)</sup> (10)	19
B(수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수사(경찰, 검찰) 경험만 있는 성폭력 피해자	S (6)	T (9)	15
C(미고소)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신고, 고소 등을 하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	X (19)	Y (11)	30
D	수사과정, 재판과정에 신뢰관계인 동석, 재판 방청 등 경험이 있는 일반인 연대자, 활동가	5	6	11
E	변호사	1	4	5
F	기타	7	10	17
총합		47	50	97

**백소윤** 감사합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피드백을 해 준 이 피해자국선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연대자 D 님이 직접 진행하신 설문조사 보고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발표 2** 앞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내용을 전달하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간단하게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설문조사는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에 한 것으로, 구글폼으로 익명(직업 등 상세 정보 미확인)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면으로는 익명이기는 하지만 연령, 직업,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연관이 있는 부분만 제가 다시 잘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수사기관(경찰, 검찰)으로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가능한 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받은 후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B 수사경험 피해자(15명)	S	T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	0	0	0
충분하지는 않지만 듣기는 했다	2	0	2
안내서 교부만 있었을 뿐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8	3	5

2.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제도’ 중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체크해 주십시오(중복 체크 가능)

	B 수사경험 피해자(15명)	S	T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다	8	4	4
사건 진행상황, 가해자 구속, 형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6	3	3
고소인은 불기소처분 후 그에 대해 불복해 항고,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3	1	2
보복 우려가 있을 경우 수사관에게 조사 시 인적 사상의 기재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3	0	1
범죄로 인한 심리상담, 치료 지원이 가능한 스마일센터 등이 있다	8	4	4
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주거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1	1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	9	3	6
진술 조서에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가명조서)	9	4	5
피해자 본인 혹은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7	3	4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7	3	4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이나 무료 변호를 받을 수 있다	3	1	2

3.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적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진술을 하셨습니까.

	B 수사경험 피해자(15명)	S	T
혼자서 진술	7	3	4
변호사 동석 후 진술	7	2	5
변호사 외 신뢰관계인 동석 후 진술	1	1	0

4.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종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B 수사경험 피해자(15명)	S	T
영상녹화	2	1	1
진술녹음	0	0	0
녹음, 녹화 없이 수사관 대면	13	5	8

**발표 2**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찾아가면서부터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관이, 특히 경찰 같은 경우가 관련 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가계끔 해요. “어차피 하셔도 (국선변호사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라고 하든가 아니면 “궁금한 점들은 전부 다 피해자국선변호사하고 논의하세요,” 이렇게 해 버립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은 빼고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전담을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피해자국선변호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해 버려요. 그러니까 (성폭력상담)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먼저 간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에 대해 과한 기대를 갖거나 불신을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2019년 설문 당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던 게 뭔지 물어봤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수사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호 및 지원제도를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충실히 설명하면서, 본격적인 조사 전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연결을 시키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고 수사에 대처할 수 있을텐데, 그런 사전작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제도의 사전 미고지 혹은 불충분한 고지, 피해자 조사 후 피해자국선변호사 연결 등)에서 수사기관이 뒤로 빠지면 결국 남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해도 수사관이 어차피 피국변이 와도 별로 할 일이 없으니(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에게 진술부터 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선정 고지를 하는 시점도 피해자 진술을 하고 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증의 확보가 어려운 일반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에게 조력이 필요한 시기는 사건에 대한 인지 및 분석, 관련 법률상담,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수사기관 피해자 진술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진술까지 하고 나서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오면 피해자국선변호사 입장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변호사하고 의논하면 된다고 하는데 변호사는 사실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서 피해자 혼자 오해를 쌓는 거죠. 피해자 진술도 급할 게 없어 피국변과 연결된 후 상담을 거친 뒤에 천천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국변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도 못하고,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혼자 진술을 하고 나면 그 뒤에 피국변과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관련 대처 과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았습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9명) B 수사경험 피해자(15명)	P	Q+R	S	T
예	21	6	7	3	5
아니오	13	3	3	3	4

6.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평가해 주십시오.

	A 재판경험 피해자(19명) B 수사경험 피해자(15명)	P	Q	R	S	T
수사, 재판과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력을 했다	2	1	0	1	0	0
수사, 재판과정에서 진술 시 동석, 합의 시 의사 전달 정도의 조력을 했다	9	4	1	1	1	2
수사,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은 바가 없다	6	1	1	1	1	2

7.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9명) B 수사경험 피해자(15명)	P	Q+R	S	T
사전 변호사를 선임해서	3	1	0	1	1
무로법률지원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서(여가부,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등)	3	1	0	1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한지 몰라서	7	0	2	2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4	1	3	0	0



**발표 2** 피국변 지원제도 안내는 그나마 좀 되는 편이긴 한데 문제는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에서 끝내요.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선임이 됐을 때 피해자들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국변이 하는 조력에 대한 평가 역시 적극적 조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피국변 선정 후 피국변 조력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피해자 진술 시 동석하거나 합의 시 의사전달 정도입니다. 저도 피해자가 진술한 이후, 혹은 진술 당시 피해자국선변호사하고 연결이 됐을 경우 피해자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균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조력 범위는 동석 내지는 합의와 관련해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국변이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그나마도 개입 시기가 피해자 진술 이후여서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피해자들이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거나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변호사 조력이 성폭력 사건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사선으로 선임하거나, 사선 선임이 어렵다면 성폭력 상담기관과 연계해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것이고, 그마저도 잘 안 되면 피국변 선정 신청을 피해자 진술 이전으로 잡을 겁니다. 저같은 경우 경제적 여유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우선 기관을 찾아가 무료법률구조 신청을 하라고 권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없는 피해자들의 경우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예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사기관에서 피국변 제도를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해당 제도가 무용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국변제도에 대해 더 회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8.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9명) B 수사경험 피해자(15명)	P	Q	R	S	T
그렇다	4	0	0	2	0	2
대체로 그렇다	9	4	1	2	1	1
조력을 거의 받지 못했다	10	4	2	1	1	2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하지 않았다	11	1	2	0	4	4

9.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가야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증인석에서 답변이 꺼려지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질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바 있습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8명)	P	Q	R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했다	5	0	0	5
대체로 이의제기를 했다	2	1	1	0
가끔 이의제기를 했다	5	3	2	0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6	4	2	0

10.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가야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 (18명)	법조인 합계(303명) 3)	법관 (237명)	검사 (30명)	피해자 변호사 (36명)
충분하다	0	34 (11.2%)	29 (12.0%)	5 (16.7%)	0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다	2	165 (54.5%)	144 (59.8%)	0	21 (58.3%)
충분하지 않다	16	104 (34.3%)	64 (26.6%)	25 (83.3%)	15 (41.7%)

**발표 2**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 조력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자 변호사의 어떤 조력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느꼈다는 피해자분들의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점들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변호사 조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봉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간단히 정리해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과 만날 때 변호사 조력 가능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종합적 법률 조력이 가능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비해 피국변제도를 활용하게 될 때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나 수사관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자가 혼자서 확인하며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려 노력합니다. 이런 제도를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피해자 혼자서 계속 속앓이를 하거나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사건번호를 제공받는 방법,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형사사법포털, 정보공개포털, 경찰민원포털, 나의사건검색 등 피해자가 사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사이트를 소개하고 활용하는 방법 등을 알리고, 피해자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과 변호사 조력이 필수인 부분을 분리해서 전달합니다. 특히 지연고소(사건 발생 후 일정 시간이 흘러 진행되는 고소로 대개 물증 확보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 변호사 조력 내용 및 시기에 따라 단계를 분류해 각 단계별 변호사 활용법을 설명합니다. 물론 변호사 조력이 어려운 단계에서는 피해자 혼자서 혹은 신뢰관계인 등 다른 사람의 조력이 가능한 제도 등을 설명하구요.

11.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외에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8명)	P	Q	R
예	9	3	1	5
아니오	9	5	4	0

12.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 외에 피해자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바 있습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8명)	P	Q	R
예	6	3	0	3
아니오	12	5	5	2

13.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의견서, 참고자료,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9명)	P	Q	R
예	16	7	4	5
아니오	3	2	1	0

14. 재판 진행 중 제출한 피해자의 각종 문서의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A 재판경험 피해자(16명)	P	Q	R
그렇다	5	1	0	4
대체로 그렇다	3	1	1	1
아니다	6	4	2	0
원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1	1	0

15. 재판 진행 중 피해자 본인이 직접 혹은 피해자 변호사나 검사를 통해 서면으로 피해 감정,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등을 밝히는 것이 어땠습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9명)	P	Q	R
쉽지 않았다	11	7	4	0
어렵지 않았다	8	2	1	5

16. 피해자가 재판부에 재판기록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9명)	P	Q	R
예	11	4	2	5
아니오	8	5	3	0

17. 재판기록물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한 기록물이 무엇인지 체크해 주십시오.  
(중복 체크 가능)

	A 재판경험 피해자(11명)	P	Q	R
공소장	10	3	2	5
공판조서	9	2	2	5
피고인측 변호인 의견서	10	3	2	5
피고인측 변호인 참고자료	8	2	1	5
증인신문조서(피해자 본인)	10	3	2	5
증인신문조서(피해자 외의 증인)	8	2	1	5
결심공판 내용(피고인측 변호인 최후변론/피고인 최후진술 등)	7	2	0	5
판결문	11	4	2	5
항소장, 항소이유서	7	1	1	5
상고장, 상고이유서	7	1	1	5
기타	8	2	1	5

18. 재판기록물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신청한 기록물 중 재판부가 열람복사를 불허한 기록물을 체크해 주십시오.(중복 체크 가능)

	A 재판경험 피해자(11명)	P	Q	R
공소장	0	0	0	0
공판조서	3	2	1	0
피고인측 변호인 의견서	5	2	1	2
피고인측 변호인 참고자료	5	2	1	2
증인신문조서(피해자 본인)	3	0	1	2
증인신문조서(피해자 외의 증인)	2	0	1	1
결심공판 내용(피고인측 변호인 최후변론/피고인 최후진술 등)	3	2	0	1
판결문	1	1	0	0
항소장, 항소이유서	0	0	0	0
상고장, 상고이유서	0	0	0	0
기타	5	2	1	2

19. 재판기록물에 대한 열람복사가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 혹은 입증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8명)	P	Q	R
그렇다	18	8	5	5
대체로 그렇다	0	0	0	0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0	0	0

20. 피해자 증인 신문 외에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습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8명)	P	Q	R
매번 방청했다	4	0	0	4
최대한 많이 방청하려고 노력했다	3	2	0	1
증인신문 외에 결심이나 선고 등 주요 재판 정도만 방청했다	0	0	0	0
증인신문에만 참석했다	11	6	5	0

21. 피고인과의 접촉차단형태 중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조치는 무엇입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8명)	법조인 합계(144명) <sup>4)</sup>	검사(30명)	피고인 변호인(78명)	피해자 변호사(36명)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차폐막만 설치	0	47 (32.6%)	6 (20.0%)	34 (43.6%)	7 (19.4%)
피고인 퇴정 후 신문	14	63 (43.8%)	22 (73.3%)	19 (24.4%)	22 (61.6%)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4	29 (20.1%)	2 (6.7%)	21 (26.9%)	6 (16.7%)
기타			0	4 (5.1%)	1 (2.8%)

22.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가야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증인지원절차 안내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증인신문에 참여했습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8명)	P	Q	R
예	13	5	3	5
아니오	5	3	2	0

23.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가야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본인이 활용한 증인 지원 절차에 체크해 주십시오(중복 체크 가능).

	A 재판경험 피해자(18명)	P	Q	R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17	7	5	5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17	7	5	5
증언 전후 동행 및 보호 (증인지원관 제도)	11	4	2	5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변호사 등)	13	5	3	5
증인지원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활용하지 못했다	2	2	0	0

24.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가야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8명) <sup>5)</sup>	P	Q	R
요청했고 재판부에서 허가했다	12	5	2	5
요청했는데, 재판부에서 불허했다	1	0	1	0
요청하지 않았다	5	3	2	0

25.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 신뢰관계인으로 어떤 사람을 요청했습니까.(2인 이상 허가 받은 경우 중복체크 가능)

	A 재판경험 피해자(13명)	P	Q	R
피해자 변호사	10	3	2	5
가족	0	0	0	0
지인	0	0	0	0
연대자	8	2	1	5
기타	0	0	0	0

26.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해자) 또는 그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B 수사경험 피해자(15명)	S <sup>6)</sup>	T <sup>7)</sup>
예	6	3	3
아니오	9	3	6

27.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해자) 또는 그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은 후 이를 피해자 변호사 나 수사관(경찰, 검찰)에 알린 적이 있습니까.

	B 수사경험 피해자(6명)	S	T
예	3	1	2
아니오	3	2	1

28.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경찰, 검찰)이 합의를 종용한 적이 있습니까.

	B 수사경험 피해자(15명)	S	T
예	6	2	4
아니오	9	4	5



29. 수사 과정 중 합의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일상의 재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B 수사경험 피해자(15명)	S	T
예	2	1	1
아니오	13	5	8

30.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가해자) 또는 그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9명)	P	Q	R
예	9	4	3	2
아니오	10	5	2	3

31.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가해자) 또는 그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을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 변호사, 검사를 통하거나 혹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밝혀도 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9명)	P	Q	R
예	6	1	0	5
아니오	13	8	5	0

32.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가해자) 또는 그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고 합의를 한 후 합의의 동기나 경위를 피해자 변호사, 검사를 통하거나 혹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해당 내용을 재판부에 밝힌 적이 있습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5명)	P	Q	R
예	1	1	0	1
아니오	4	3	0	0

33. 재판 진행 중 합의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일상의 재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재판경험 피해자(19명)	P	Q	R
예	7	5	1	1
아니오	12	4	4	4

## [연대 시 변호사 관련 체크사항]

### 가. 신고·고소 전 전달사항

- 준비 없이 수사기관 가지 말기
- 전문가 조력방법 및 조력 범위 확인하기
- 수사기관 방문 시 혼자서 가지 말기
- 기록 및 녹음 생활화하기
- 공동인증서 발급받기
- 수사 및 재판 단계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알아보기
- 정보공개포털, 형사사법포털, 국민신문고, 나의사건검색 등 활용 가능 사이트 알아보기

### 나. 변호사 선임방법

- 사선 선임(계약서 확인 필수)
- 무료법률지원사업(여성가족부)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법무부)

### 다. 대응 시나리오(자연신고·고소의 경우/수사기관 진술 전)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A	성폭력 상담기관 - 법률·의료 지원 관련 상담 - 무료법률지원 신청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변호사 동행 상태 수사기관 진술
B	성폭력 상담기관 - 법률·의료 지원 관련 상담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 변호사 동행 상태 수사기관 진술
C	성폭력 상담기관 - 법률·의료 지원 관련 상담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 변호사 미동행 상태 수사기관 진술(신뢰관계인 동석 여부 체크)

경찰 수사 단계	사건 파악 및 상담	상담방식 결정 (대면/통화/메일/메시지/화상회의 등) 상담주기·회차·시간 등 확인
	고소장 작성·제출	고소장 작성 및 검토 고소장 제출(방문/우편)
	피해자 진술 시 동행	동행 회차 확인 변호사 미동행 시 대안 확인 조사방식 확인(대면/녹음/녹화/대질 등) 가명조서 활용 및 인적사항 기재 범위 확인 조서 작성 후 확인
	의견서·탄원서 등 제출	의견서 제출 회차, 내용 공유 및 검토 여부 확인 참고자료 제출 시 공유 및 검토 여부 확인 탄원서 제출 시 공유 및 검토, 제출 주체 확인
	수사기록물 열람·복사	피해자 진술조서 확보 증거보전절차 등 확인
	합의	합의 여부 확인 합의 시도 시 조건 등 확인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피해 대응방법 확인
	구속 전 피의자신문	출석 및 의견진술 여부 확인
	사건진행상황 확인	사건번호/수사관 이름 확인 사건진행상황 전달 방법 등 확인(경찰단계: 의무)
	각종 이의제기	수사심의신청 수사관기피신청 그 외 각종 민원
	불송치 시 대응방법	불송치 결정 내용 확인 불송치 결정 후 이의제기 여부 및 방법 확인
	각종 보호·지원제도	피해자전담경찰관 확인 신변보호 신청방법 확인 범죄피해평가 제도 확인 경제적 지원 확인(범죄피해자구조제도 등) 심리적 지원(피해자심리전문인력/스마일센터 등)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 확인

검찰 수사· 처분	범죄피해자 의견진술제도	구속 전 심문절차 참여 및 진술 범죄피해 양형자료보고서 확인
	범죄피해자 통지제도	사건처분결과·공판개시·재판결과·구금상황·출소·보호 관찰 집행상황 통지 등(신청 시 가능 내용 확인)
	합의	합의 여부 확인 합의 시도 시 조건 등 확인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피해 대응방법 확인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 신청방법 확인 형사조정 대응 방법 확인 조정 시 동행 여부 확인
	피해자 진술 시 동행	(경찰단계 참조)
	각종 이의제기	감찰 신청방법 등 확인 (경찰수사관 기피제도와 비교) 민원 제기 방법 확인
	각종 보호·지원제도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등 확인 (경찰단계 참조)
	기소 처분	약식기소 구공판
	불기소 처분	항고 등 불복절차 확인

## 련

재판	기본사항 파악	사건번호 확인
		재판부, 공판검사, 피고인 측 변호인 확인
		피해자 변호자 선임계 제출 등 확인
		재판 일정 등 확인
	재판 방청·동행	증인신문 시 동행 여부 확인
		증인신문 외 재판 방청·동행 확인
	피해자 증인신문	소환장 수령 방법 등 확인
		증인지원제도 활용 관련 상담 및 의견서 제출 확인
		증인신문 대응방법 등 확인
	재판기록물 열람·복사	재판기록물 열람·복사 신청 방법 확인
		재판기록물 공유·검토·분석 등 확인
	의견서 및 탄원서 등 제출	의견서 제출 회차, 내용 공유 및 검토 여부 확인
		참고자료 제출 시 공유 및 검토 여부 확인
		탄원서 제출 시 공유 및 검토, 제출 주체 확인
	피해자 의견진술제도	의견진술 방식(구두/서면) 등 확인
	합의	합의 여부 확인
		합의 시도 시 조건 등 확인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피해 대응방법 확인
	형사배상명령제도	형사배상명령 신청 여부 확인 형사배상명령 신청 방법 등 확인
	상소(항소/상고)	상소 여부 확인(공판검사 연락 등)
	추가 소송	민사·가사·행정 등 소송 대응방법 확인
		추가 형사고소(2차가해 등) 대응방법 확인

**발표 2** 제가 이걸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본 건데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단계가 매우 복잡해졌고,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60개가 넘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수사 단계를 설명하면서 변호사 조력의 시기 및 내용도 알립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피해자 진술 시 동행, 의견서나 탄원서 제출, 사건 진행 상황 확인, 각종 이익제기, 불송치시 대응 방법 등 단계별로 실제 피국변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수사기관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피국변에게 떠넘기는 구조라 피해자와 피국변 쌍방의 오해만 계속 쌓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피의자의 경우 2018년부터 피의자 자기변호노트가 있지만 피해자는 그런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도 없습니다).

저는 사건의 특성상 무료법률구조(사업)와 피국변제도는 충분히 서로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조력 시기에 따라 피국변이 할 수 있는 일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보니 피해자들은 계속 피국변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술 후에야 연결이 된다는지, (조력 시기상 할 수 있는 게 그 뿐이라) 합의 타진 시에나 (피해자가 피국변에게) 연락을 받게 되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 입장에서 연락 한 번 하기 어려운 피국변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충분히 더 전달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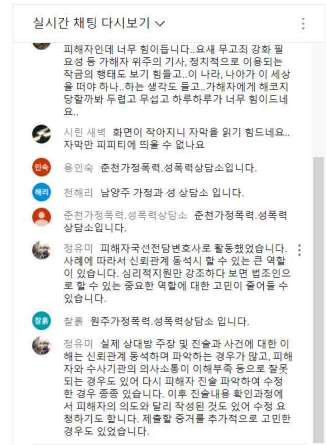
검찰 수사나 처분 단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 단계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겠지만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이제 경찰이 의무적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2022년 2월 경찰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에게 사건진행상황 통지를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음) 그러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걸 더 나아가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에게도 관련 내용이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만 있을 뿐 사실 각 단계에서 피국변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답답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울화통이 터지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도 말씀 하시겠지만 사법 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각 당사자의 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협업 체계를 관리하고 컨트롤타워를 해야 할 법무부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국변제도와 관련해 피해자와 피국변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백소윤** 감사합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피해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피해자변호인단 활동을 했던 변호사였는데요. 디지털 피해자는 아예 사건 중에 안내받지 못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이용에 대한 특이한 지점이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김여진** 앞서서 너무나 현장 단체와 피해자분들의 경험으로 설문조사를 공유해 주셔서 저희 단체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국선변호사제도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 사례에서 피해자가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여전히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이버성폭력 피해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포협박 같은 경우 기존 법에서 다룰 수 있는데 왜 성폭력처벌법에 따로 법을 마련해야하냐는 문제제기를 입법 운동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았어요. 기본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로서 권리 보장이 안 됐기 때문인데 여전히 작년 법 개정 이후에도 성폭력처벌법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방의 성폭력 사례, 온라인에서 성폭력 사례가 여전히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만 가능하고 피해자 개인의 SNS 계정이나 사이트 계정에 침입해서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사이트에 올린다든가 민사상 초상권 침해 등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걸 모두 검토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서 신청을 해 볼 수 있지만 국선변호사제도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더불어서 유포된 촬영물이나 게시물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이런 것도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통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역시나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 변호사가 통합적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형사 절차는 국선변호사님이 계시고 가처분은 저희 무료법률지원사무소로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선변호사를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들 앞에서 너무나 잘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사이버수사대에 유포피해인데 국선변호사선임 제도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런 답변을 수사관한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 오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해바라기센터에 가면 안내가 이루어지는 편인데 경찰대, 민원실, 사이버수사대 바로 직면하게 되는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2차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어떤 권리 보장 안내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설사 안내가 되어도 그 시점이 너무나 늦어요. 국선변호사 선임 의사 등을 묻는 체크리스트가 피해자 진술조사 때 배부되는 거죠. 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만약에 국선변호사와 동행해서 조사받고 싶으시면 오늘 꼭 안 해도 된다고 안내가 됨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 배부 자체를 더 일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임이 된 이후에도 정말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문제는 복불복이라는 거고 가장 많이 포착한 어려움은 아예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이런 게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무엇을 불러 일으키냐면 가해자들은 대형로펌에서 변호사가 몇 명씩 붙을 때 가해자 변호사는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됐을 때 내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혜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담소가 그 이후에 좀 뒤늦게 연결되어 개입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논의가 어렵게 되기도 했습니다.

**백소윤** 좀 더 구체적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을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중요한 부분을 짧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통계나 사건 지원 경험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세부적인 주제도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합의에 대한 것입니다. 김혜란 공동대표님께서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합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왜 문제가 되고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해자 국선변호사와의 관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심지어는 사건의 진위를 의심받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라는 이유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는데 피해자국선변호사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을 지원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금전적 배상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둘 때 이 부분에 대해 안내를 하고 법적 효과를 공유를 하는 것이 본인 역할이기 때문에 접촉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큰 갈등을 낳게 되는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국선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한 감정적인 케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관점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됐든 처벌의사를 유지하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올바른 관점이 요구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수단도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격차입니다. 연대자 D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법원을 많이 다니면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외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에서 사전 미팅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대자D**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부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일단 피해자국선변호사 수가 적고 그러니까 결국 수사기관과 협조가 되는 곳에 일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파악도 안 되고 피해자하고 상담 같은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수사기관 출석, 법원 출석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목석같이 있으면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같은 게 발생했을 때 변호사가 옆에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피해자국선변호사의 결합 시기 자체가 큰 차이가 나고 지역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신경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국선변호사 본인도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런 경향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 2022년부터의 변화라고 하면 이제 판사들이 직접 재판을 하게 될 때 피해자국선변호사를 계속 찾아요. 거기서 저는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출석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 대부분 피해자의 증인 심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보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영상이나 사진 등의 증거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나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되고 피해자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또 한번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열심히 출석만 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결국 피해자는 재판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물어보는 적이 있었어요. 사건을 소개하니까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냐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백 변호사님을 춘천에서 뵈고 나머지분들은 서울에서 봤는데 제대로 성폭력 성착취 사건만 하더라도 조력 여부에 따라 재판 진행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런 것이 국선으로 갔을 경우에 지역 격차가 여전히 심하다는 것,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요소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소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실시간 채팅으로 피해자 전담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심리적인 지원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법조인으로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저도 그런 의식에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법률 조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적합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또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면 더 좋은 일은 무엇인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 주제를 마무리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② 피국변이 체감하는 제도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  
안희정/이윤택/박원순 사건 피해자변호인단)

**김혜정** 두 번째 주제는 피국변,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체감하고 있는 제도는 어떠한가요.

2021년에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된 상황이 격화,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법무부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소통이 굉장히 부족했던 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 상황도 아까 공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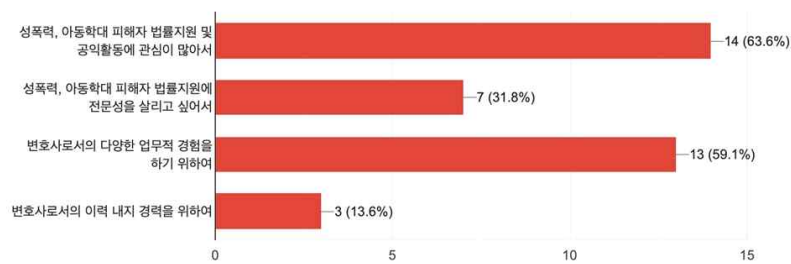
2012년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시범 운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으면서 수년째 보수 청구도 못 하기도 하고 여러 제도를 직접 체감하고 담지해왔던 서혜진 변호사님이 다른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좀 더 모아서 제도와 구조의 문제를 짚어보는 이야기를 해주 시려고 합니다. PPT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8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피해자국선변호사 활동, 어떠십니까?

- 조사기간: 2021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
- 조사대상: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 조사참여자: 22명
- 조사방법: 설문지에 익명으로 참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와 동기는 무엇입니까?

응답 22개



피해자 국선활동을 앞으로 지속할 의사가 있습니까?

응답 22개



**발표 3** 저희가 이 토론회를 위해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활동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일주일 동안 설문을 받아봤어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많은 변호사님이 참여는 못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들이 앞에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너무 피해자국선변호사활동을 잘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자칫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뭔가 항상 저희가 문제되는 게 어떤 부정적인 제도 특히 보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변호사의 밥그릇 싸움이나 이런 이야기에 대한 지적을 항상 받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결국에는 운영상의 문제로 원래는 저도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피해자국선변호사 활동은 왜 시작하게 되었는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기타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설문상 사실 가장 많은 계기와 동기는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공익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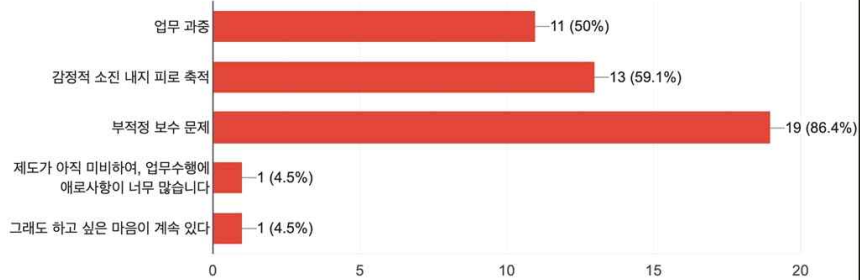
그리고 이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전문성을 살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동기 자체는 사실 어떤 물론 개인적인 동기도 있을 거고 공익적인 동기도 있을 거지만 사실상 이런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에서 전부 다 시작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활동을 하고 싶냐, 피해자 국선 활동을 하겠습니까라는 대답에 사실 많은 분이 부정적인 의견도 주셨습니다.

36.4%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있다고도 거의 비슷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감정적으로 소진이 너무 크고 보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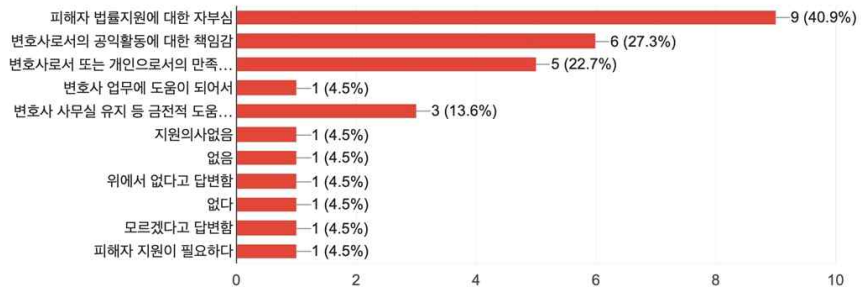
피해자 국선활동을 지속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지원의사 없다고 답하신 분만 응답)

응답 22개



피해자 국선활동을 계속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지원의사 있다고 답하신 분만 응답)

응답 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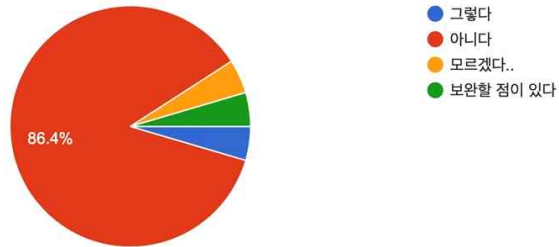
**발표 3** 그렇다면 왜 지속할 의사가 없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가장 큰 것이 사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보수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이 활동에 대해서 너무 공익적인 취지라든지 개인적인 업무 성취에서는 꼭 도전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감정적으로 너무 소진된다, 피로가 축적된다. 그리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하고 싶다고 대답한 변호사님들은 왜 계속 하고 싶냐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피해자를 법률 지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공익 활동을 하고 있다는 책임감, 그것을 가장 많이 꼽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원 계기나 동기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계속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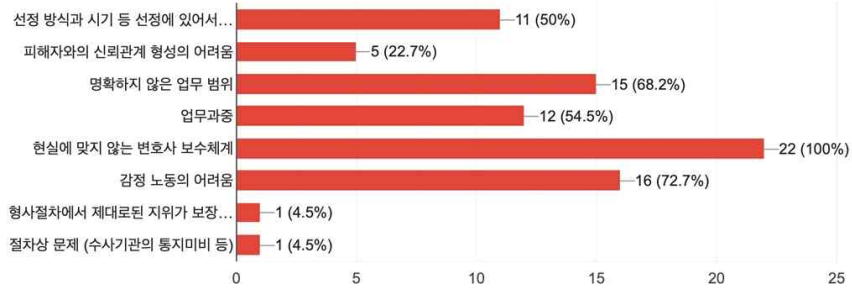
피해자 국선번호사제도가 현재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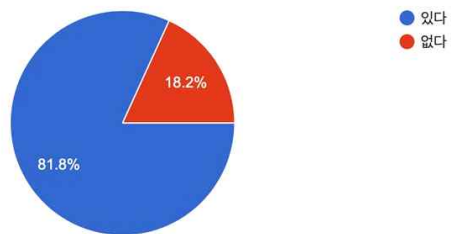
피해자 국선번호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22개



피해자 국선번호사 활동 중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력자 또는 지원단체와 함께 일을 해 본 경험이나 의견을 교류한 경험이 있나요?

응답 22개





**발표 3** 다음으로 피해자 국선 제도가 그렇다면 현재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사실 거의 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그렇다고 대답한 분도 사실 한두 분 계시지만 아주 대다수,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나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질문에 응답한 100%의 변호사님들이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변호사 보수 체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문제죠,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도 하고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업무 설정 범위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선정 방식도 문제고 선정 시기도 문제가 된다. 계속 앞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시기가 경찰조사 이후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팔로업할 수 없습니다. 자료 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 단계에서 어렵죠. 경찰협조도 어렵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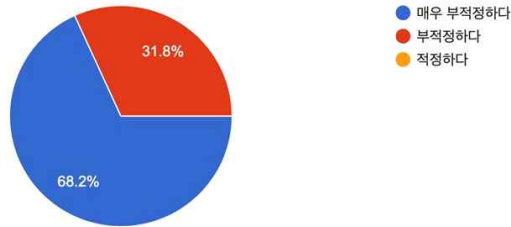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선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선정 시기는 시기가 중요한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선정은 이만큼 했을 때 언제 너희가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적절하게 했는가라고 물었다면 거기는 답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2015년, 16년 자료만 하더라도 언제 가장 많이 선정된 시기에 대한 통계가 있었는데 경찰조사 진술 이후에 선정된 게 가장 많았다는 통계도 있어요. 최근에는 그런 조사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만 봐도 선정 시기가 사실 너무 문제입니다. 변호사들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사실 문제는 다음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보수 체계가 저희에게 사실상 봉사과 희생을 강요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보수체계,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주시고 모두 100%가 여기 이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사 활동하는 중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원단체나 조력자와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냐, 의견을 공유한 경험이 있냐고 물었을 때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80%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나머지가 없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거에 되게 놀랐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이 지원단체와 의견 교류는 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행 피해자 국선번호사 보수체계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22개



피해자 국선번호사 활동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또는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나요?

응답 22개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과 피해자 국선번호사제도 중 피해자 조력에 더 부합하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22개



**발표 3** 그리고 다음으로 보수체계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사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매우 부적정하다는 의견이고 적정하다는 의견은 0이에요, 0.

그리고 피해자국선변호사 활동을 다음으로, 감정적으로 업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가장 큰 문제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죠. 너희는 변호사야? 우리는 변호사야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면 안 해야지 알아서 해결해라고 하지 어떤 해결방식이 없습니다. 그냥 주변 변호사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한다. 그다음 특별한 해결방식이 없다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되면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 여가부가 하고 있는 이 사업과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중에 좀 더 부합한 제도는 무엇이나.

제 개인적으로는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저는 변호사로 많이 활동하지 않고 무료법률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변호사가 여가부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활용 안 했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거의 비등한 답변이었고요.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의미 있다고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아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피해자국선변호사 운영방식, 이대로는 안된다” (주관식 응답)

- 단순히 수사기관의 민원처리담당자로서 취급하지 않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
-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검찰에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전산시스템 마련 필요
- :경찰 사건 번호, 구속여부, 구속영장신청 내지 청구 계획, 영장 발부 여부, 피의자의 혐의 인정 여부
- :1. 처분에 따른 문서(가해자에 대한 공소장, 불기소이유서 등), 2. 기소된 경우 법원 형사사건번호 위와 같은 자료나 정보

## “피해자국선변호사 운영방식, 이대로는 안된다” (주관식 응답)

- 피해자별로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자율적, 융통성 있는 피해자 지원 필요
- 그런데 21.10.5일자 법무부 보수기준표(피해자 면담 30분 강제, 의견서 작성 강제, 기존까지 정액제로 운용하던 2만원 전화상담료 지급 삭제 등)는 피해자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획일화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임
- 예컨대 전화업무, 합의 관련 소통이 가장 많은 업무인데 실제 업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사건 보수청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발표 3** 그리고 주관식 응답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뒤에 보면 제가 키워드로 묶어봤어요.

맨 뒷장입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 범위 설정해라, 그리고 국선변호사라면 최소한 피해자 지위를 넘어서는 것은 없겠지만 관계기관, 수사기관에서는 최소한 우리한테 최소한의 자료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요.

사건이 어디로 갔다,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피해자한테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할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는데 그거를 피해자한테 설명을 해도 피해자는 핑계로 느끼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피해자라고 해도 굳이 변호사의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변호사의 입장은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것을 운영하는 관리 주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나 몰라라 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간 소통이, 둘만의 갈등을 누적시키고 피로도를 축적시키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선정 방식이나 시기는 너무너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률 조력에 대한 어떤 공감은 다들 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보수가 너무 많이 안 되고 우리가 그리고 전담과 비전담 국선변호사가 있는 것은 다들 알 거예요.

전담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오직 이 사건만 하는 변호사님을 말하고 저나 원민경, 정수경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비전담으로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사실 전부가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시작하거든요.

공익 활동에 대한 참여라든지 변호사로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 이런 취지에서 다들 시작을 하지만 현실에 부딪혀서 안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피해자가 얼마만큼 이해해줄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저희 너무 이게 어렵거든요, 저희 봉사활동이에요. 아마 그런 앞서 이야기도 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이야기가 된 것 같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내가 변호사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 한다면 이해하기 정말 어렵겠죠.

## “피해자국선변호사 운영방식, 이대로는 안된다” (주관식 응답)

- 법무부는 미봉책으로 검사의 보수 재량권을 확대하겠다고 하나, 실무상 보수산정은 피해자 지원과 직원이 하고 있고, 기준표상 예시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 기존에도 보수청구시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왔음. 최종 결재만 하는 검사가 재량권을 행사해 증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음. (변호사와 심리상담 지원은 별개이며 협력이 필요한 영역임)
-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제대로 지원은 피해자의 지위 향상, 권리보장에도 직결됨

## “피해자국선변호사 운영방식, 이대로는 안된다” (주관식 응답)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조서 참여시 피해자국선변호인 선정 후 함께 참여를 권장했으면 하는 바램. 그러나 피국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날짜 시간 등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간단하니 변호인 동석 없이 진행해도 된다."고 하며 피해자만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음.



**발표 3**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결국 운영하는 주체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영 주체인 법무부가 탁상행정은 그만해야죠. 책상에서 짜고 말도 안 되는 보수 체계 산정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저희를 잠재적으로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초기 업무를 할 때는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를 막 해서 발표합니다. 너희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 저희 위축돼요. 나는 제대로 청구했는데 부당하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희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청구할 수 있는 게 10개가 있으면 많이 귀찮아서 실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저만 해도 2017년 이후는 청구도 못 했어요. 국가에 대한 채권이 4년 치 쌓여 있는 건데 어마어마하죠. 저 같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너무나 많은 변호사가 3, 4년 치 보수 자체를 청구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내 돈을 내가 출혈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돈을 받는 방식인데 돈을 다 받느냐, 절대 다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까지 했는데 산정하는 사람이 뭐야? 의견서에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 삭감, 삭감.

저희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디 항의할 데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까지. 이런 탁상행정은 그만 두고 현실을 봐야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면 그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피해자변호사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 잠재적으로 너희는 잘못을 할 것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게 저희는 불쾌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자부심의 문제고 책임감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저희는 더 이상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는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 실질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문성도 쌓아야 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변호사가 있잖아요. 새로 진입하는 변호사, 다양하게 쌓아야 하는데 어느 한 게 무너지게 되면 피해자지원에 대한 지속성 이런 게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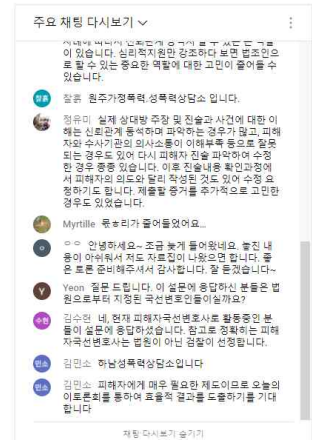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다는 것을 저도 꼭 전달해드리고 싶고 피해자 변호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에 부딪히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무리하지만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이어서 정수경 변호사님이 2021년 상황을 조금 더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무부는 이 자리에도 사실 없고 유튜브라도 보겠다고 하는 연락도 없었고 되게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청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수면 위로 가시화되는 일이 있었는데 법무부가 내놓은 대안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정수경 변호사님이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 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다



**정수경** 안녕하세요? 정수경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분들이 많은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좌절과 실망감을 들으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시는 사례별로는 아무리 변명해도 그냥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잘못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해의 측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사실 하고 싶어도 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사실 뉘앙스의 차이도 있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소통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국선변호사 입장에서 올해 있었던 법무부와의 관계나 이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아마 듣고 나면 그래서 그 변호사가 그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짜증을 냈구나 하는 게 이해되려나요?

최근 2021년도는 어쨌든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론에 대한 공격, 여론의 공격, 무차별적인 공격,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어



도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합의의사 전달,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피해자한테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전달적인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합의의사가 있습니까?라고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편이나 이렇게 댓글도 달리고 이런 것도 저도 봤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여론과 언론이 피해자국선변호사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보도를 내는 상황에서 10월 5일 자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규칙이 개정되었고 법무부가 이것을 피국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피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로 개정된 보수표를 발송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를 법무부에서 이렇게 냈어요. 비전담 국선변호사가 부실하게 업무 수행을 해서 우리가 보수를 개정한다,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저는 2012년 이 제도 개설 때부터 일을 해왔는데 처음 제도 개설 때는 정말 법무부의 과장님 나와서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하는 변호사들한테 밥 사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 보수는 최대한 여러분이 수고하는 만큼 상응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를 꼬셨어요, 우호적으로. 그리고 제도가 처음 생겼고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제도가 얼마나 사실 설레고 가슴 뛰고 보람 있는 일입니까? 많은 변호사가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소통이 점점 적어지고 2012년도 이후에는 소통이 없어요, 거의. 이렇게 보수표 개정됐다고 달랑 이메일 하나 보내는 거? 게다가 이전에 2018년에 보수를 40% 삭감했습니다. 그랬을 때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께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라면 법무부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지? 기분 나쁘면 나가라는 건가? 그만 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18년 당시만 해도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이것을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우리끼리 소통 창구도 없었고요.

이번에 10월 5일 자로 이런 보도 자료를 내면서 너희가 부실하니까 너희가 책임져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바꿀 거야 그러면서 이루어진 게 이거입니다. 대면 상담이 없으면 다른 보수도 안 줄 거야 수사 참여를 했는지 의견서를 100번 썼는지 상관없이 그냥 0원이야 이런 거고 제가 느낀 뉘앙스예요. 야간 수사 참여, 휴일 수사 참여 증액했던 거 다 사라졌고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보수도 삭감됐어요. 하지만 보수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대면 상담을 하는 곳이 코로나 시국에 많지 않아요. 대면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대면상담을 하지만 나 이 사건 이야기만 들어도 힘들고 변호사 목소리로

들어도 짜증나요, 톡으로 해주세요, 이메일로 해주세요, 문자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검찰청 피해지원과에서 이래요, 전화 상담은 보수 지원 안 하니까 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날 갑자기 대면 상담을 제외한 모든 상담에 대한 보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최근 2년간은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들이 피국들이 피해자와 상담 안 합니까? 전화 안 합니까? 이메일 안 합니까? 다 해요. 다 공짜로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법무부와 검찰청의 태도가 일방적이라는 거죠. 전후 사정이 이랬고 이런 식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런 소통이 2012년 이후에 지금 2021년인데 9년 정도 됐잖아요, 9년 동안 하나도 없었다가 보수표만 날리는 거예요.

너희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할게 이러면 저희는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하는 거 자랑스럽고 좋아요, 변호사가 살인범도 변호할 수 있고 사기범도 변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를 변호한다는 게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축이 되어서 단톡을 만들었고 많은 변호사의 원성을 법무부에서 전달했고 원래 법무부가 움직이는 기관이 아닌데 이번에는 인권과장님, 계장님이든 열린 마음으로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주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2차 미팅까지 가지고 보수표도 어느 정도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 작업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법무부에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수표를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개정하고 있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두 달 전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통이 중요한가를 절감하고 있어요. 법무부와 미리 소통이 됐다면 이런 탁상행정식으로 그러니까 대면 상담이 너무 중요하죠.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서도 대면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폭력 사건 특성상,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직접 대면 할 수 있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담 형태가 존재하는데 대면 상담 안 하면 보수를 주지 않겠다? 이거는 100% 탁상행정이죠.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업무는 상당히 다양하고 변수가 많다고 할까요? 정형적이지 않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선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원 단계에서 선정된 피해자는 아예 상담 보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책상에서만 만든 게 아니냐 비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법무부도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피해자국선변호사들도 그동안 우리가 연대하지 못했다, 피해자변호사끼리도 연대하지 못했다, 소통이 없었다는 반성적인 의미에서 단톡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피해자진술조서 피해자가 복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게다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신상을 지우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양의 소송 기록 복사도 정말 3, 4시간씩 걸려요. 이거를 피해자 변호사가 가서 직접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느냐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직원이 있으면 직원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요즘 최저시급 올라서 직원 쓰기 쉽지 않은 거. 사건도 우리가 경찰, 법원 체크해서 어디로 갔는지 바뀐 검사님 성함이 뭔지 우리가 일일이 다 알아봐야 해요. 이거 변호사가 할 수 있겠어요? 변호사 직원이 해줘야 하는 업무인데 국선변호사가 직원에 월급을 주면서 이런 일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진술한 진술 조서도 내가 못 받아보냐? 변호사가 복사하러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나오는 재판, 피해자가 증인신문하는 재판은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물론 서울의 경우지만.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의 관할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지예요. 피고인이 전라도 군산에 있다. 그러면 군산지법에서 사건이 열립니다. 그러면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열려요, 피해자 변호사가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사임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에는 아예 피해자국선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건이 부산으로 갔지만 그냥 제가 상담하고 법정에 참여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판사님한테 의견서 형태로 전달하고 사건 진행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만족하면 계속 하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사임하면 뒤 단계가 보장이 안 되니까. 멀어서 갈 수 없다, 죄송해요 멀어서 갈 수 없어요. 법무부가 주는 것은 기차값뿐입니다. 지방법원에 참석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정법원으로 가는 소년보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가든 누가 가든 2시간은 보통입니다. 변호사가 가서 내 사건 피해자를 위해서 2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1, 2년 하다 보면 가정법원 사건 나 안 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법무부와 관계는 굉장히 최악으로 치달았다가 지금 현재는 복원 중에 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 두고 말지 더럽고 치사하다. 보수 삭감됐을 때는 정말 그만 두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피해자 돕고 싶어요. 어느 사건보다 뿌듯하고 어떤 사건보다 애착이 갑니다. 피해자분이 사건 끝나고 카톡 보내면 너무 감사하고 저도 기쁘고 제가 이 맛에 변호사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송구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죄송하고 정말 슬픈 마음입니다.

소통 일단 중요하고 국선변호사들끼리도 그리고 피해자와 국선변호사 그리고 법무부 그리고 같은 검찰청의 피해자 지원과 모두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소통하려고 하겠습니까? 피해자분들 그래도 이 제도하에서라도 조금 더 잘 지원받고 그래도 마음의 오해가 없고 조금 더 좋은 사건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10월 말쯤 됐을 때는 그랬어요. '법무부를 미워하지 말자' 법무부를 미워하면 뭐 하겠어요? 법무부가 작정했을 때 피해자 지원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기 어렵거든요. 여가부, 법무부, 국선변호사, 그리고 피해자 지원단체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연계된 사건 지원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피해자 심리상담을 통해 더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국선변호사제도와 관련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국선변호사들이 이런 어려움이 올해 있었답니다.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많이 이해하기를 바라고 함께 연합해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지금 거의 한 8년 동안 쌓여있던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이야기도 되게 많은데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성폭력상담소가 하고 있는 지원 업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행위별로 다 청구해라, 별도로. 상담일지 다 첨부하고 또 하나하나 어떻게 소통했는지 어디에 동행했는지 뭘 지원했는지 하나하나를 다 따로 캡처하고 증빙하고 문서를 만들어서 청구하면 이게 6개월 후에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일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반성폭력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걸 피해자 지원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활동가들이 재생산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는데 변호사님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해 오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변호사님이 여기 나오셨는데 이런 행위별 청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한마디씩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비교함으로써 이야기되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심에 해당하는, 2심에 해당하는 그리고 심급별로 총 얼마라고 하는 게 주어지고 여기 안에서 좀 협력과 다양한 사건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카톡 다 캡처하고 전화도 이제는 청구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사인받아야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과 좀 비교함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그 업무 자체를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별로 청구하는 방식,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원민경 변호사님도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민경**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도 쌓으면서 사무실 운영이 연속성이 있는 그런 업무가 될 것이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이후로 법률 조력인으로 등록한 이후에 갑자기 검찰에서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이미 다른 사건이 있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어떤 사건에 제가 동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제가 그 사건에 변호사로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동석할 수 없는 사건에 제가 어떻게 변호사로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지금 피해자 동석할 수 없으니 다른 변호사님께 요청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법무부의 피국변 제도에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게도 8, 9년 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저는 모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변호사로서 보람과 더불어서 어떤 현장 상담소들과 협업하면서 여성 무료법률 사업에만 했어요. 국선변호사제도도 더 열심히 하도록 운영됐어야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무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태라면 저는 법무부나 경찰이 저희가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관련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한 포스터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과감하게 붙여 놓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렇게 법무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피해자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제대로 된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설 변호사 그런 걸 안내해야지 마치 법무부가 사설 변호사랑 동일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어떤 보수를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사적으로 변호사 선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저는 이 피해자국선 변호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는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한 걸 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법무부에 이 업무가 맡겨져 있는데 그 업무를 법무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피해자에 대한 최고, 최상의 법률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재정에 대한 것과 함께 저는 당연히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보수를 조정해 달라, 수고했다는 이메일에 감동하고 있어야 할 게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분노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옆에서 전 피해자들이 이런 상황을 안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싶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이 계속 정말 그 전문성을 쌓아 나가고 있는데 피해자 변호사들이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심지어 어떤 피해자 변호사께서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고소장을 복사해서 보자고 하면 그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의 공소장을 복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공소장을 복사해서 보지 않으면 어떤 내용이, 그 이후에 어떤 변호가 이루어질지 충분히 짐작하시죠?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피해는 누가 입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는 오늘 토론했던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들은 반드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피해자들이 함께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오늘 두 번째 주제에서 변호사님들이 느껴 왔던 이런 것들이 그냥 보수 체계만의 문제, 그러니까 보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조를 만드는 데 성폭력상담소도 운영 체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피해자와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들에 대한 어떤 탄압이라든지 운영 체계가 완전히 부당하게 될 경우에는 다 함께 싸우자고 연대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함께 느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 ③ 협력적 법률조력 어떻게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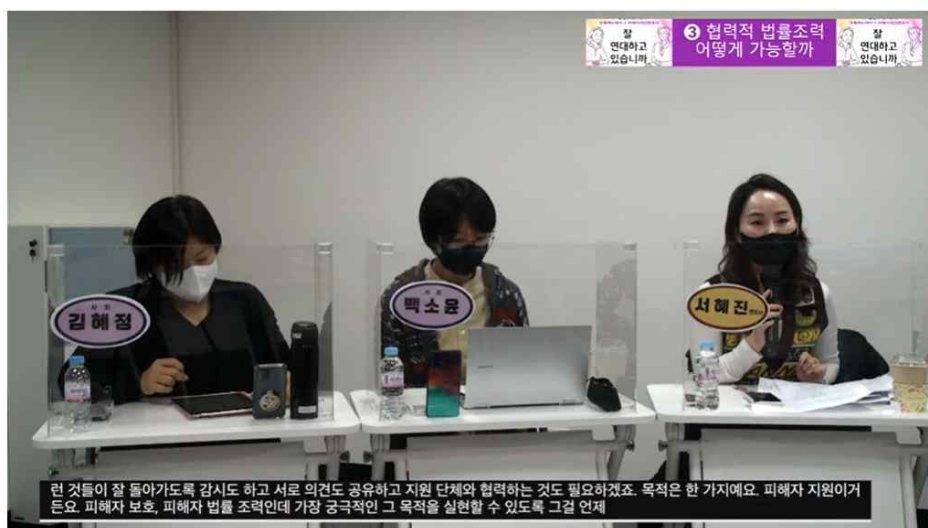




**백소윤** 세 번째 주제는 협력적 법률 조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피해자 법률 조력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앞에 서혜진 변호사님이 PPT를 통해서 심리적 업무적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각자 알아서 한다. 아까 김혜란 대표님께서 연대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협력적 법률 조력 주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슈퍼비전도 나누고 조금 이런 많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쌓고 있는데 모든 협력 체계가 그런 피드백을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협력적 법률 조력 과연 어떻게 가능할지 패널들이 꼽는 요소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민경 변호사님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혜진 변호사님 먼저 좀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님들 의견 듣고 다른 활동가분들, 선생님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진** 일단 저희 변호사들끼리도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소규모 친분이 있는 분들끼리만 나눴지 이번처럼 저희가 처음으로 한 100명 조금 넘는 규모의 피해자국선변호사님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을 처음으로 개설했어요. 조금 늦은 거죠, 저희도 변호사끼리 연대 활동을 하면서 업무 어려움이나 모르는 걸 서로 공유를 하고 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변호사들이 대부분 팀플보다는 개인플레이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못 했던 것 같아요. 2018년에 빨리 좀 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온 거는 사실 저희도 서로 간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했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책임도 있어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 제도에 주체적으로 저희도 참여했어야 했는데 뭘

가 그냥 대상, 대상으로만 계속 존재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어느 정도였냐 하면 공판 검사가 피해자국선변호사한테 증인 심문 사항을 써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디선가. 그런데 초기에 정말 많이 그랬어요.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전화 와서 공판 검사가 해야 할 역할이죠,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은. 그런데 피해자국선변호사 네가 좀 써줄래라는 요청을 은근히 많이 했었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리고 이걸 경찰이든 검찰이든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피해자의 변호사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 자신의 어떤 수사 조력자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업무의 어떤 독자성, 주체성을 거기서부터 이제 괴리가 있는 거고 그분들은 우리가 뭔가 피곤하게 한다. 귀찮게 한다고 여겨지는 순간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업무를 우리한테 떠넘긴다든지 직접 연락을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알리는 것도 사실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 는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을 저희가 다 전달할 수도 없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부당한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변호사들끼리도 사실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했어야 했다. 그래도 지금 100명의 단톡방이 생기고, 물론 이번에 생긴 계기는 좀 분노와 그런 분노감을 표현하는 데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공유하면서 모르는 걸 공유하고 이런 부담감이 있다, 이런 걸 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업무적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단순한 개인으로 바라봐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긍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지식을 나누는 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 업무 중에서 그렇게 피해자 지원 업무가 어떻게 보면 신종 업무일 수 있어요. 최근의 신종 업무고요.

사실 지금 성폭력의 시장화 문제가 가장 문제예요, 성폭력 가해자의 시장화 문제. 그런데 우리가 차칫 잘못하면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사실상 그들을 키워준 셈이 되거든요. 우리는 뭐하는 사람인가 가해자 시장만 커주는 존재가 되는 것인가, 법률 업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본질적인 고민을 이제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폭력 시장화에 대한 저는 이 제도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지원이, 그건 국가의 헌법적인 의무예요.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무는,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가도록 감시도 하고 서로 의견도 공유하고 지원 단체와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목적은 한 가지예요. 피해자 지원이거든요. 피해자 보호, 피해자 법률 조력인데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무너지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도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민경** 지금 저희가 앞에서는 조금 어둡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어떤 제도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 당사자성 그리고 법원의 판결. 그리고 최근 한 30년, 특히 최근 한 4, 5년 사이에 큰 발전을 이뤘고 어떻게 보면 그 발전이, 어떻게 보면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가해자의 변호 활동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변호, 협력 체계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좋은 모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여러 변호사님들이 미투, 용감하게 미투 할 수 있는 사건들을 변호해 본 경험들이 있으신데 이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상담소와 변호사가 협업을 하고 그 과정이 피해자를 돕는 과정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그 사건을 직접 맞닥뜨리고 싸워 나갈 때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 저희 이 자리 모이신 분들이 모두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수경** 저는 피해자 변호사, 피국들의 단톡이 생긴 것이 여러 명인 건 좋은데. 왜냐하면 혼자 피국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내 업무인가, 이걸 왜 하지라고 생각했다가도 단톡에서 다른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선배 변호사나 동료 변호사가 그 정도는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변호사가 별로 힘들어하지 않으면서도 법률 조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도 대화가 오가요. 그러면 피해자국선변호사 입장에서 다른 변호사와 다른 변호사의 업무와 자신의 변호사를 어쨌든 비교해 보게 되면서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구나, 인식을 할 수 있고 혼자 독단적으로 피해자한테 상처주지 않는다거나 끊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한 차례 의견을 거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협력에서 좋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성폭력 상담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맡은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데 상담 지원을 신청을 해야 하고 그런데 사실은 상담이 굉장히 밀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 지금 신청해도 한 달 뒤에 날짜가 잡히고 피해자는 주간에 직장 활동, 학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말을 원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성폭력 상담소가 있다, 지역 성폭력 상담소가 있다고 그러면 우선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되 전화 상담이라도 우선 하시라라고 연결도 될 수 있고요. 또 성폭력 상담소 입장에서라도 내담자랑 상담을 하던 도중에 연락을 해서 그때라도 짧게 짧게 법률 상담을 하고 여가부의 지원을 받을지 법무부의 지원을 받을지 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심리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서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고 변호사로서도 일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놓친 것이 있나, 내가 너무 변호사 시점에서 사건을 바라본 게 아닌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가부와 법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법무부의 보수 체계가 여가부부터 일률적이고 좀 더 이렇게 원래 변호사의 취지에 맞는 선임료를 주고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하는 체계로 나가겠지만 여가부는 일단 소송 결정을 통해서 한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가부처럼 1심부터 이렇게 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나,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사 한 번을 받고 종결되는 사건, 내사되는 사건이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건당 다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 이러면 좋을 수 있겠지만 재정적으로 과연 이게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문조사에서 여가부와 법무부 존치가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여가부의 문제는 9월이 되면 돈이 떨어져요. 9월이 되면 우리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공격을 당했다는 이제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을 때는 법무부가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내년 1월에 신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마르지 않는 법무부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이메일을 받고 감격하는 1인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국선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1심이나 2심이 종료가 되면 여가부의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을 때 여가부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을 해서 같이 하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가부 사건과 법무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서 이것 또한 협력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의견서 복사해서 내고 대면 상담 사인서 다 내는데 여가부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편하다고 할까요? 한 사람의 피해자를 두고 법무부와 여가부 사업을 같이 했을 때 국선변호사로서 보수의 면이나 일하는 면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협력적으로 좀 더 법률 조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소통의 장, 피해자는 피해자국선변호사한테 전달할 수 있고 피해자국선변호사도 피해자한테 전달할 수 있게. 피해자국선변호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새벽 5시에 전화하고 핸드폰 번호를 오픈하는 변호사도 있고 없는 변호사도 있는데 그런데 국선 변호사를 괴롭히는 분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연락이 잘됐으면 내가 새벽 6시에 문자를 했겠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도 있고 피해자분에게도 있고 법무부에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좀 알아가고 연대하고 기관 별로 협력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런 자리가 많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나 피해자국선변호사인데 나 개인적으로 항의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개인적인 항의 방문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단체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선변호사들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고 지역 성폭력 상담소하고도 협력하고 법무부와 경찰하고도 협력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법무부는 경찰청하고 소통이 안 된대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왜 경찰청에서 하지 않는지 이러더라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소통하면서 오해하지 않고 서로 더 잘 조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소윤** 감사합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법무부 예산이 남는 게 아니라 나중에 비용 청구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업무 과중이 되다 보니까 아예 포기한다는 이런 의견도 주셨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업무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제 변호사 역할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업무가 굉장히 상반되는 어떤 업무로써 다소 위축되고 그에 대한 평가도 변호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인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데서 평가가 치중된 것도 문제가 아닌가 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자D**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피해자하고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할 수 있는 지점, 기관과 센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류를 해요. 제가 표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저쪽, 이걸 저쪽 이렇게 해서 아예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중간에 의문이 나는 상황이 있을 때 제가 그걸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피국과는 연락 방법, 이런 걸 해 놓죠. 전화, 메일, 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방법을 거쳐서 던지고 피국 같은 경우도 어느 기간 내에 답변을 하고 서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상담인데 최근에는 화상 강의 같은 걸 잘 이용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다든가 피해자의 상태에 맞게 분류를 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왜 나는 감정의 쓰레기통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피해자하고 연락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개별적으로 피해자 개개인과는 활동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교육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체크리스트 형태라든가 매뉴얼 형태로 피해자 입장에서 하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변호사는 법률 조력가지 피해 상담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찾아가면 된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상처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서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법률지원단은 19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지금 3기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연구팀까지 만들면서 열심히 해보려 했고 단체 여력상 지금 연구팀을 해소하기는 했지만 법률지원단을 만들게 된 계기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셨으면 좋겠고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삼위일체로 팀워크를 이루어, 같이 목표 설정을 하고 가면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팀워크를 발휘하고 서로 성장하는 상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아직 국가가 성폭력상담소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소는 심리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관점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전략을 논의해 가는 과정인데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많거든요. 탄원서 어떻게 모을 건지, 연대 요청 어떻게 할 거고 기자회견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제도가 만들어낸 거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는 상담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법무부가 이런 변호사님들과 피해자들 간의 소통의 어려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의 한계를 설명한 거지 당신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건 당사자끼리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제삼자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담소의 역할과 법무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변호사님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잘못됐다고보다는 정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사설 변호사, 서비스의 관점에서만 존재할 때 우리는 이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고 제도적인 전반이 좀 보완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란** 시간은 별로 없고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보는 분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냥 꼭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들이 똑같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국선변호사님도 다 똑같지 않죠. 사실 저희 상담소는 위기센터를 통해서 변호사님들과 주로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아니면 변호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피해자를 만나면서 처음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통합상담소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 상담도 해요. 그러면 경찰은 112 출동을 나가서 밤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나면 가정폭력 상담소를 무조건 소개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 팩스가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어제 출동했던 곳에 전화해보라고. 그런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상담소가 소개돼서 변호사 제도가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함께 경찰에 와서 조사받을 수 있다. 혹은 지금 국가는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놓고 있고 어떠한 한 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안내하는 것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지금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지역에서도 이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조차 없는 변호사 한 명을 만나려면 2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일어나기 때문에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만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방방곳곳에 피해자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백소운** 감사합니다. 결국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주셨지만 피해자에 대한 법률 조력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진심을 다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것이 절차와 결과를 더 이상 우연에 맡기지않는다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인가 이것으로 결론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를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 4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김혜정** 오늘 토론회 현재 190명 이상 200명 정도가 계속 보고 계시고 2시간째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남기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소통을 정말 그동안 못 했던 이야기를 많이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나눠야겠다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2시간 동안 못 다룬 이야기가, 관련해서 꼭 짚어야 할 시각이라든지 실제 작동할 때 드러나는 문제나,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남겨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네 번째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입니다. 앞에서 나눈 이야기를 모아모아서 이번에는 이런 것 개선해야 한다고 모든 패널에게 다 이야기 들으면서 이 네 번째 세션을 할 건데요. 두괄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의 패널이 7가지의 제언이 될 수 있도록 모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소윤** 1. 피해자 변호사 활동 업무, 피해자국선 전담이든 비전담이든 진입장벽은 낮추되 좋은 인원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피해자국선변호사를 선발하고 또 교육하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물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법무부에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 모두에게 이것이 어떤 제도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달 피해자국선변호사 전문 교육을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것을 받았는데 관점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변호사분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혜진** 2.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의 현실 인식과 파악이 필요하다

3.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이해에서 서로 간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금씩 자기의 위치에서 주체성을 찾아가자

피해자도 형사절차상만이라도 조금 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 변호사도 거기 피해자가 주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사람으로서 위치하고 피해자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고 진짜 일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민경** 4. 법무부 인권국 내에 최상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뒀야 한다

지금 피해자 지원이 굉장히 찢어져서 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지원, 경제 지원 따로인데 모든 것을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별로 각각 다른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 사건을 돌파해야 하는지를 컨트롤 타워에서 같이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컨트롤 타워에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경** 5. 제도 개선 이전에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존치가 필요하다.

내년에 대선이 있고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가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요. 폐지를 하겠다 바꾸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명한 분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가부가 보인 행태를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여가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여가부가 없다면 그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가부가 무료법률사업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여러 가지 명예훼손이나 무고, 여러 가지 민사소송할 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가부가 존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정도 수준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가부에서 받은 것은 없지만 여가부가 존치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6. 공소장 같은 기본 서류에 대해 수사재판기관이 피해자국선변호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법원이 피해자국선변호사 사무실로 팩스 형태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중앙지방법원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수원으로 인천으로 공소장 2장 복사하자고 직원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소장은 기본 서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서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형태로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공소장 내용은 알 권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면 이게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그래서 기본 서류 정도는 알 수 있게 피해자국선변호사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7. 서울 외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여주지법 옆에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가 2심 때는 서울까지 2시간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가야 해요. 이거는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서울과 비서울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의 피국들의 활동이나 지원 정도의 질은 너무나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양질의 비슷한 정도의 국선변호 활동을 지원받을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소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나 인권 감수성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실시간 채팅창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변호사님들이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해주셨고 김여진 활동가님, 연대자D님, 김혜란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여진** 8. 국선변호사 연계가 피해자 진술조사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와 상담한 후에 조사시에 배석할 수 있도록 연계시기를 정해두어야 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 전에는 안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조사 꼭 안 해도 된다, 변호사도 같이 해도 된다고 안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9. 현재 법상 해당하지 않는 성폭력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 선임 권리 가져야 한다.

현재 법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어떻게 국선변호사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 10.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는 전국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성폭력 앞으로 더 대응하려면 말씀해주신 지역 문제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사이버성폭력 특성상 가해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신고하고 어디 살고 있는지 알면 여기서 진행될 텐데 괜찮으세요 변호사님 이렇게 찾으러 다니기도 하는데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다는 거죠.

#### 11.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의 점검과 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지금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가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여가부에

서 성폭력 피해자 관련 지원제도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 지자체 지원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과 특화상담소의 지원과 각개전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와중에 변호사 역할은 무엇이고 활동가 역할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혜란** 12. 국가의 성폭력 피해자 제도 : 신설, 난립보다 기존 것의 제대로 된 활용이 우선이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지 말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 13. 여성가족부 지원 무료법률구조사업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9월에 떨어지지 않도록 확충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또한 사실 전담 인력이 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전담인력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지 말고 있는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연대자D** 14.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체계화,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국선변호사와 무료법률지원 사설 변호사를 포함해서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역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각종 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갈 수 있으면 피해자가 그나마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경** 15. 이슈가 되는 사건에만 주목하기 보다 본질적인 제도 운용에 충실해야 한다

n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법무부든 여가부든 새로운 재정 지원을 전부 사이버성폭력에 대 폭 지원하겠다는 여러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돈이 들어갔어요. 당시 사이버성폭력 사건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어떤 비용이나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2018년 성폭력 피해자국선변호사 보수가 40%로 삭감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n번방 사건이 주목받다보니 여론 무마하고 뭘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척하고, 피해자국선 변호사 기본 보수는 다 깎아놓고 n번방과 유사한 사건에만 생색내기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 이걸 정말 너무 없어 보이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자괴감만 주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땀 흘리지 않도록 본질적인 거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민경** 16.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 모니터링, 정책제언이 자주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자리를 자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정** 네 번째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두괄식으로 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돼야 할 안내, 언제 피해자랑 만날 것인가 그리고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을 꾸준히 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하는 것. 그리고 변호사들끼리든 서로의 업무를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법무부에서 정말 범죄 피해자, 혹은 법무부가 우리 인권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정말 있느냐하는 이야기까지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 질의응답 · 참여자의견



**김혜정** 이제 마지막 함께해 주신 참가자, 온라인 참가자들과 마무리하면서 한번 어떤 의견들이 올라왔는지 함께 모아보는 그런 마지막 시간입니다.

**백소윤** 대부분의 내용을 중간중간에 관련된 내용은 좀 공유를 드려서 좀 몇 가지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토론회가 시작되고 초반에 한 분께서 본인이 직접 용기 내서 피해 사실을 말한 피해자인데 성폭력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계속 이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이 힘이 들고 또 가해자한테 그런 와중에 해코지 당할 위험을 고려하는 것도 많이 힘이 든다고 하셨는데 피해자 법률 지원의 의미를 우리가 어디서 찾고 어느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를 좀 보여 주는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부분은 변호사가 업무상, 실무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까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지원 기관이나 혹은 변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권력 차이, 이런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한 분께서도 변호사는 “나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것이 개인 변호사가 지원을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의 태도, 또 제도의 미비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려면 변호사들도 성폭력 상담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피해자 변호사가 절차상 얻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울산지검에서는 국선에게 공소장 제공 및 판결 결과는 보내주는 데 전부 직원들 개인 노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분이 그런 데가 있냐. 따로 신청을 안 해도 보내주는 게 있냐. 저도 사실 따로 직접 법원에 가기 때문에 추천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2023년도에 조금씩 시작된다는 형사소송 전자화에 얼마나 인정을 해 줄 것이냐가 걱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미나 그런 데서, 절차적인 보완, 실무적인 부분 의견을 많이 주셔서 풍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을까 싶어서 좀 봤는데 따로 질문이 있지는 않고 의견을 전반적으로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사전 질문에서도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주셨는데 주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담과 비전담, 보수 체계 왜 피해자가 소통이 어려운 이제 조금이라도 접근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건 수사기관의 역할.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돼서 지원을 받는 시기가 앞당겨져야 한다는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됐었는데 사전 질문에서도 많이 그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혜정**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상담소에 법률 조력에 대해서 여러 문의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변호사분들도 어떤 힘든 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공군에서 부사관님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고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한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조사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국감을 통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법무부가 또 현장의 목소리를 간과한 어떤 제도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변호사님의 목소리도 조직이 되었고 같이 해 보자고 해서 이 토론회를 기획하고 사전 모임을 통해서 오늘의 순서를 배치하고 함께 많은 분이 해 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루지 못한 주제가 있습니다. 올해 초였나요. 법원에서 젠더법 연구에 대해서 큰 토론을 했는데 그때는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가, 위치가 무엇인가. 열람등사권 왜 계속 불허되느냐, 어디까지 의견개진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법리 주장 이런 데까지 가지 못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계속 격차가 있는 채 제한적인가. 이마저도 피해자 변호사의 위치가 계속 이야기를 해야만 그 권리가 보장되고 이런 개별이 싸워야 하는 상황이 왜 여전히 펼쳐지는가, 이런 주제는 더 크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도 있고 해바라기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변호사님들이 바쁘시지만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구조에서 많이 만남을 하고 서로의 협력 체계 안에 들어가면 이런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빠르게 나누거나 서로 파악하거나 필요한 어떤 제언 활동을 좀 더 조직해 나가거나 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로 평소에도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 고생하셨고요. 저희 유튜브에 제목 옆에 이렇게 꺾은 표시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보면 오늘 참가자 만족도 조사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참가자 만족도 조사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이지만 오늘 어떤 시간이었는지 꼭 평가해 주시고 의견도 법무부라든지 남기고 싶은 의견 제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씀 남기고 싶은 분 계신가요? D님, 수경 변호사님, 여진 님 세 분 인사를 마무리로 나누겠습니다.

**연대자D** 로스쿨 학생들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많은 변호사 지망생들이 피해자를 피해자 곁에서 조력하고 싶은 역할을 했다는 신념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있고 문제가 여전히 많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분리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 피해자를 왜 변호하는가 그리고 피해자를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계속 같이 이야기돼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당장 사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 재판이라고 불립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변호사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기관들은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때 로스쿨에서 많이 뺐던 분들 언제 한번 인사 나눴으면 하고요. 현장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경** 2021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게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과정이 소망으로 바뀌는 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못하게 변론 활동을 해 왔던 여러 가지, 물론 제가 대표 입장은 아니지만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성으로 한 사건, 한 사건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선변호사로서는 개개인의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을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와 관련된 일에 좀 더 목소리를 내야겠다.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항의할 건 항의하면서 제도를 잘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같이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잘 연대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여진** 사실 활동가로서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경찰서에 전화했을 때 당신이 뭔데, 당신한테 왜 이 정보를 알려줘야 하느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피해자 대리인이라는 위치도 그렇게 많은 권한이 있지 않을 수 있다

는 걸 보면서 국가가 피해자 지원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이 예산과 그 밖의 처우나 권한 확대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반성폭력 운동과 운동이 만들어낸 제도, 그리고 제도 속에서 자기 목소리로 사회를 바꾸는 곳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멋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자산인 것 같아요. 가해자들은 많은 돈으로 시장화된 사이에서 큰돈으로, 큰 피해자의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더 사회를 역행시키기 위해서 갖은 수를 쓰지만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또 연대하는 어려운 점들은 나누면서 또 문제가 있으면 함께 직면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 온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일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 수많은 사람의 노력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수고에 서로의 목소리와 용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거침없이, 용기 있게 우리가 하려고 했던 활동들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같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패널 분들 그리고 공동 주최해 주신 한국여성변호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함께 봐주신 모든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백소윤** 감사합니다.

**김혜정** 감사합니다.

## 토론회 참여자 사전 질문, 의견 모음

- 피해자가 국선변호사를 선택할수 있는 제도는 없는건가요? 임의로 배정이 되는건지요?
-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으면 합니다
- 제가 맡은 사례 중에 최근에 두 분이 국선변호사에 대한 지원을 못 받았고 불만이 많아 두 사례 모두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국선변호사를 바로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복잡하면 안 할 것 같고요. 국선변호사가 지원해주는 범위를 알고 싶고요 도움이 안 되거나 불만족했던 국선변호사는 이유를 피해자가 제출하면 국선변호사 자격선정에 고려하면 어떨까합니다.
- 제도와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제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문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경찰의 역할, 개선이 필요한 관행, 기대하는 점, 효율적 실질적 연계방안
- 국선변호사의 활동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상담소와 긴밀하게 유대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법정 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사님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서 암울합니다.
-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피해자와 국선변호사의 사이에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또한 이해도 됩니다. 지금도 많은 수고가 있으시겠지만 사건에 대한 의견나눔과 피해자분의 생각이 공유되어야 하는 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선변호사님과 상담소간의 연락이 자주 이루어진다면 연결고리가 되어 피해자분께도 의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 국선변호사와의 연대에 미흡함이 있었는데 토론회를 통해 지도 개선이 되길 기대합니다
-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국선변호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시설 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하여 국선변호사와의 소통이 (대면 비대면 포함) 대략 몇 회 진행되나요? 사건의 추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토론회 참여자 사후 설문응답 모음**  
**“행사에 대해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꼭 필요한 토론회가 이제야 시작되었네요.
- 국선변호인의 어려움을 해결할수 있는 법무부의 노력이 필요
- 국선변호사분들의 어려움과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 더욱 와닿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서로 사람이 하는 일임을 이해하고 잘 연대하여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이여서 좋았고 오늘 나온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안전, 완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현장에서 활동하는 입장과 법률지원입장을 함께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변호사, 활동가, 상담소 등 각 기관의 어려움과 상황을 들을 수 있어 오해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 되는 것 같았습니다.
- 국선변호사분들의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해 제대로 말씀해주셔서 이제야 알고 있나 싶어 그나마 다행이라 여깁니다
- 패널들의 다양한 시각으로 현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 국선전담변호사 참여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전담변호사의 경우 보수 이외 현 피해자지원 제도의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 협력적 법률조력에 대해 심도있게 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저는 상담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 센터와 피해자 내의 고충사항만 어렵짐 작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국선 변호사 제도의 문제점과 변호사분들의 애로사항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경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 국선변호사들의 보수가 적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활동가들도 보수가 적지만 열심히 피해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사회제도적 문제이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갖고 열심히 싸워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피해자들을 보수로 인해 외면하지는 말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연대와 방법에 대한 부분보다는 고충토로에 대한 내용이 중점이 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리고 포커스가 서울, 경기지역에만 집중되어 지방의 실무자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 법무부나 여가부 등 성폭력피해자와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관련된 부처가 참여하는 토론회였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해서 지역활동가로서 불만 사항이 많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피해국선변호사님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피해자지원을 하면서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래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진행 상황등에 대해 문의해도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지원기관에서나 변호사분은 사건 진행상황을 더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토론장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좋았던 점: 피국의 사정과 법무부가 가져가야할 부분을 알 수 있어 좋았음 인상적인 점 : 피국활동을 출연하신 변호사님 같은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게되어 충격, 다행이다 싶고 제도의 궁극적 취지를 위해 같이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국선변호사의 애로점을 알게 되었으나 성폭력 피해자가 용기내고 판결까지 너무 힘든 가시밭길을 가는 거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 변호사님들의 애로사항 부분도 잘 알 수 있었지만 피해자분들은 변호사님이 한 줄기 빛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들의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 어려움의 많은 부분을 피해자가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 국선변호사제도시행이후 점검 혹은 실태 파악 내지는 진단 등을 생각하는 기회가 처음으로 열린 토론회라는 데 대해 놀랐습니다.
- 활동가분들과 피해자국선변호사님들의 각 경험을 들으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법적대응관계에서 피해자가 주눅들어서 2차피해가 생기지 않게 피해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좋은 내용이지만 특히 D님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었습니다. D님의 노력이 좀 더 연대하여 하루라도 빨리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도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연대자D님이 말씀하신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많은 지원단체에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 변호사님들의 발표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었습니다.
- 합일된 이야기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피해자 지원이라는 역할 아래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 피해자의 어려움과 국선변호사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님들의 연대와 소통, 변호사와 피해자지원기관과의 연대와 소통을 기대합니다.
- 상담소와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과 자주 오늘과 같은 토론장을 만들면 서로가 느끼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이해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소가 연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너무 좋았습니다.
- 그동안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한 피해자의 어려움, 불편함이 많은 상황에서 참 많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마련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참여자 사후 설문응답 모음**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 법률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법무부의 개정 아니고서는 많이 힘든 상황이 느껴집니다. 삼위일체로 팀워크를 이루는 날,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인 관점을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피해자가 원활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 성폭력상담소, 국선변호사,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피해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 이런 장이 온라인에서라도 마련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국선변호사님들도 개인의 영리목적보다 진정한 여성권익을 위해 마음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야기 해 주신 것 처럼 무료법률지원사업에 대한 예산문제로 인해, 피해자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피해자변호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소장 사건진행 등 통지, 복사나 문서제출 협력받을 수 있는 인력지원, 경찰검찰법원의 인식개선 등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 변호사들의 비협조적, 감수성 부족 등도 매우 큰 문제점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도 과연 법무부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남네요. 물론 제도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 너무나 공감하나 변호사 사회 내부를 되돌아 봐야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네요.
- 피해자국선변호사도 여성변호사회 등처럼 하나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내부적으로 함께 성장을 도모하고, 기관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소통하고, 관련부처에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운동, 지속가능한 피해자변호 활동이 가능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현 제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 토론회에서 제언된 내용에 모두 공감합니다. 한가지 더 말한다면 마지막에 남는 건 이것일 거 같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가 피국의 지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위한 목소리를 모아보면 좋겠어요
-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 상담소, 변호사 등에서 피해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체계적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 교육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오늘 토론회 내용이 꼭 법무부에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진입장벽을 낮춰야한다고 하셨지만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자체가 부족한, 그리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변호사를 피해자국선으로 선정하지 않

을 수 있도록 선발 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국선변호인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피해자국선변호사님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은 법무부와 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나중에 논문화하겠습니다.
- 제도개선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앞장서고 진정성 있는 국선변호사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 법적절차에서 피해자를 당사자위치에 두지 않을 거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거나, 당사자위치에 둘 거면 어느 정도 권한을 주거나 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초보 활동가로서 토론회에 참석하여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 예산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도 모자랄 판에 삭감을 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 국선변호사 제도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도를 움직이는 토론회  
성폭력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토론회 개최 \_ 2021년 12월 3일  
사후자료집 발행 \_ 2022년 3월 14일

주최 \_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편집 \_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